

호주오픈 4강 정현 ‘금의환향’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4강에 오른 정현이 29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환영 나온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나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었으면...”

“발바닥 부상 등 몸 상태 당장 검사 받을 것”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쾌거를 거둔 정현(58위·한국체대)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정현은 이날 호주발 대한항공 KE122편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수많은 팬과 취재진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정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줄 몰랐다”며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것 같다”라며 활짝 웃었다.

또 “이번 대회를 앞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한국 테니스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바닥 부상과 관련한 몸 상태에 관해선 “내일 당장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몸 상태를 확인 후 추후 일정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 오픈 경기장 내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왜 선수들이 이런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성적의 의미를 설명했

던 정현은 한국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할 일로 “건강에 관해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목표에 관해서는 “세계랭킹 톱 10에 욕심이 난다”며 “높은 곳을 보고 가겠다. 증명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현은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연파하며 4강까지 진출했다.

26일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와 대망의 준결승을 치렀는데, 2세트 도중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다.

비록 결승 무대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국내에 ‘정현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정현은 이달 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ASB클래식부터 호흡을 맞춘 고드윈 코치와 정식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날 공항엔 수백명의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연합뉴스

‘박항서 매직’ 베트남 AFC U-23 준우승

우즈베크에 1-2 패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안타깝게 패했다.

비록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준우승이라는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며 박항서 호(號)의 첫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다.

베트남 대표팀은 지난 27일 중국 장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연장 접전 끝에 1-2로 패했다. 경기 내내 끌려다니면서도 연장전까지 정신력으로 잘 버텼으나 연장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해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번 대회 준우승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베트남이 AFC 주최 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동남아 국가가 아시아 준우승을 차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대표팀 감독 취임 당시 “베트남 대표팀을 동남아 정상, 아시아 정상으로 만들겠다”던 박 감독은 당시의 공언이 결코 허황된 목표가 아니었음을 몸소 증명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폭설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베트남 선수들의 투지가 빛난 경기였다.

이날 장저우에 내린 폭설로 그라운드 라인 부근에만 눈을 치운 채 주황색 공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중에도 설새 없이 내리는 눈에 라인이 덮여 경기를 중단하고 눈을 치우기도 했다.

베트남 선수들은 낮은 날씨 속에서 경기 초반 우즈베크의 공세에 끌려다녔다. 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선제골을 내렸지만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베트남 선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반 41분 골대 정면 페널티 아크 바깥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응우옌 팡하이가 원발로 찬 공은 수비벽을 넘어 포물선을 그리며 우즈베크 골망에 꽂혔다. 제설작업으로 전반 종료 후 1시간 만에 시작된 후반전에서도 우즈베크의 공세가 이어졌다. 베트남의 이번 대회 두 차례 승부차기 승리의 주역인 부이 피엔 중 골키퍼를 비롯한 수비수들의 몸을 날려 실점 위기를 막아냈다.

연장에서도 잘 버티던 베트남은 세 경기 연속으로 승부차기에 가는 것 같았지만 연장 후반 직전 우즈베크에 아쉬운 골을 허용하고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27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김국영을 비롯한 광주시청 육상팀이 트랙을 달리며 훈련하고 있다.

“한국 육상 명성 광주시청이 있다”

제주서 시즌 담금질

세계육상 준결승 진출 김국영

세단뛰기 김덕현 등 스타 즐비

아시아 게임 등 앞두고 연일 구슬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세, 호흡 가다듬고 다시 해보자. 하나, 둘.”

27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종합경기장 웨이트 훈련장. 광주시청 육상팀 선수들이 무거운 역기를 어깨에 둘러메고 스쿼트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자선수는 100kg에서 140kg, 여자선수는 60kg에서 80kg의 역기를 들어내며 하체 근력 강화와 순발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제주에서 훈련을 하는 노승석 코치와 박태경 플레잉 코치 등 12명의 광주시청 육상팀은 올 시즌 대회를 위해 칼바람 부는 매서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제주종합경기장 웨이트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근력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전국 최고 실업팀임을 증명한 광주시청 육상팀은 명장 심재용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육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 준결승에 진출한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 김국영을 비롯해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 여자 100m의 정혜림, 여자 세단뛰기의 배찬미 등 한국 육

상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명문팀이다.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담금질이 이곳 제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4월 실업대항전을 시작으로 8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경기들이 그들 앞에 있기에 선수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는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들이 엮여있다.

이들은 각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굳어있는 뼈와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하루 훈련을 시작한다. 이후 선수들은 자신의 루틴에 맞춰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트랙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뛰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몸을 예열한다.

만족할 만한 몸 상태가 될 즈음 웨이트 훈련장에서 100kg 중량을 들어 올리며 근지구력과 민첩성, 순발력 훈련 등을 한다.

박태경 코치는 “선수들의 근지구력 등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훈련을 잘 이겨낸다면 시즌이 시작되면 스피드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파를 비롯한 날씨에 대한 변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며 “선수 개개인들의 신체 변화 등을 잘 파악해 부상 없이 훈련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용 감독은 “오는 8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에서 김국영과 김덕현, 정혜림의 활약이 기대된다.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잘 이겨내도록 성심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제주=글·사진 김진수기자 jeans@

신태용호 아쉬운 출발

을 첫 평가전 몰도바에 1-0 승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새해 첫 평가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승전보를 전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7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마르탄 스타디움에서 열린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김신욱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기긴 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166위 약체인 몰도바를 상대로 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경기였다.

이날 신 감독은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얼굴을 점점하는 데 경기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터키 전지훈련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7명을 모두 출전시키는 등 뉴 페이스들을 대거 출격시켰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 우위를 점했으나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우월한 점유율에도 전반전 슈팅은 2개에 그쳤고, 유효슈팅은 하나도 없었다.

후반 교체해 들어간 김신욱이 후반 23분 홍철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며 체면치레를 했다. 김신욱은 지난 E-1 챔피언십 한일전 멀티골 등 A매치 두 경기 연속골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광주 FC 선수들이 지난 27일 2차 동계전지훈련을 위해 일본 고치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베스트 11’ 찾고 광주만의 전술 만들겠다”

광주FC, 日 고치서 2차 전훈

프로축구 광주 FC가 일본 고치에서 본격적인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광주 선수단이 지난 27일 일본 고치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내달 14일까지 고치현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하고 조직력 향상에 나선다.

광주는 앞서 순천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에서 체력 강화에 집중했다.

박진섭 감독은 “1차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개개인의 움직임과 기술적인 역량을 파악했다”며 “2차에서는 실전을 위한 광주만의 전술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는 선수들의 개인 및 부분전술, 세트피스 등 전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에 집중한 뒤 연습경기 등을 통해 조직력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박 감독은 “전술적인 움직임과 방향은 감독이 정하고 끌어갈 수 있지만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선수들이다”며 “일본에서 7번의 연습경기가 예정돼있다.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박 감독이 이번 동계훈련에서 시즌 베스트11을 가려내겠다고 밝힌 만큼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올 시즌 광주의 유니폼을 입은 신인 두 현석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하늘

과 땅 차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당당히 그라운드에 서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프로 3년 차 임민혁은 “실력뿐 아니라 동료와의 호흡, 전술적인 부분도 모두 완벽히 녹아들어야 한다.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캡틴 안영규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몸 상태를 잘 체크해 부상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힘든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돌아 즐겁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